

제 목 : 은혜의 십자가

본문 : 눅 23:26-49

시작찬송가 : 135(새150), 138(새151), 349(새214)

헌금찬송가 : 137(새251), 144(새144), 363(새337)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이 이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는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계시의 정점이며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수용하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계시하였고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수용함으로써 구원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성도의 믿음 안에 존재합니다.

1.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인생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엠펜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②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제물은 원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속죄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③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헐고, 분리된 두 세계를 하나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엡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니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여시고

④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욕하고,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멸시와 고통을 묵묵히 견디셨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죄는 흰 눈보다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요일 2:2 저는 우리 죄를 인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⑤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롬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의 한마디 :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